

이화여자전문학교 선교사 음악교사 연구: 연합감리회아카이브 소장자료를 중심으로*

허 지 연

1. 글을 시작하며
2. 이화여전의 선교사 음악교사들
3. 미감리여선교회(WFMS)와 독신 여성선교사의 사역
4. 글을 맺으며

* 이 논문은 IMS_EA 2013, Taipei에서 발표한 “Women on the Verge: Korean Women Musicians and American Missionary Music Teachers in the Early 20th Century”의 내용을 기초로 수정·확대하여 작성하였다.

개 요

본 논문은 20세기 전반, 이화여자전문학교 음악과(1925-1945)의 교육을 주도하였던 미국인 독신 여성선교사들의 삶을 미국 연합감리회아카이브에 소장된 일차자료에 기초하여 추적함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화여전 음악과에서 전임으로 재직한 선교사 음악교사는 매리 영(Mary Young, 1880- ?), 캐서린 베이커(Catherine Baker, 1879-1972), 조세핀 대머론(Josephine Dameron, 1885-1966), 그레이스 우드(Grace Wood, 1904- ?)이다. 이들은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선교사의 소명을 받아들였고, 결혼 대신 직업인의 길을 선택하여 독신 여성선교사 신분으로 한국에 왔다.

필자는 한국에서는 추적할 수 없는 이들에 대한 전기적 정보와 활동상을 밝혀줄 일차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미국 연합감리회아카이브센터를 방문, 조사하였다. 본고에서는 그곳에서 열람한 문서들을 토대로, 선교사들의 전기적 정보를 확인한다. 또한 그들을 파견한 미감리여선교회와 독신 여성선교사의 사역을 미국의 시민전쟁(남북전쟁) 및 산업혁명이 초래한 미국사회의 변화라는 논점에서 분석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지금까지의 근대음악사 논의에서 ‘선교사’라는 집합명사에 갇혀 있던 선교사 음악가들을 개인별로 조명하는 것이 이 논문의 일차적인 목표이다. 더 나아가 음악과 선교사들의 한국 방문이 20세기 초 고등교육을 받은 미국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기실현의 장이었음을 확인한다.

주제어: 독신 여성선교사, 이화여자전문학교 음악과, 매리 영, 캐서린 베이커, 조세핀 대머론, 그레이스 우드

1. 글을 시작하며

본 논문은 20세기 전반, 이화여자전문학교(이하 이화여전) 음악과 (1925-1945)의 교육을 주도하였던 미국인 독신 여성선교사들의 삶을 미국 연합감리회아카이브(the United Methodist Archive)에 소장된 일차자료에 기초하여 추적함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화여전 음악과에서 전임으로 재직한 선교사 음악교사는 매리 영(Mary Young, 1880- ?), 캐서린 베이커(Catherine Baker, 1879-1972), 조세핀 대머론(Josephine Dameron, 1885-1966), 그레이스 우드(Grace Wood, 1904- ?)이다. 이들은 나이와 소속 선교회, 출신 지역이 서로 달랐지만,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공유하였다. 이들 여성들은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선교사의 소명을 받아들였고, 결혼 대신 직업인의 길을 선택하여 독신 여성선교사 신분으로 한국에 왔다.

필자는 한국에서는 추적할 수 없는 이들에 대한 전기적 정보와 활동상을 밝혀줄 일차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미국 연합감리회아카이브센터를 방문, 조사하였다.¹⁾ 본고에서는 그곳에서 열람한 문서들을 토대로,

1) 미국 연합감리교회아카이브센터(the United Methodist Archive Center)는 뉴저지 주 매디슨, 드류대학교(Drew University) 캠퍼스에 설립되었다. 이 센터에는 감리교 도서관(the Methodist Library)과 연합감리교 역사아카이브(the General Commission on Archives and History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이후 GCAH)가 함께 동지를 틀고 있었다. 역사아카이브는 연합감리교의 공식적인 문서저장소이다. 이곳의 소장 자료에는 연합감리교 전통 안에서 활동한 다양한 교단의 활동기록과 19-20세기에 활동한 다수의 감리교 감독, 교단 지도자, 선교사들의 개인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자료는 대부분 출판되지 않은 문서로 온라인에서는 열람이 불가능한 것이었기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열람할 수밖에 없었다. 필자는 역사아카이브 카탈로그 중 “Mission Geographical Reference Files”에 포함된 “Korea” 항목의 자료들과 “Records of the Women’s Division”에 포함된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항목의 자료들을 주로 열람하였다.

이들이 한국에 파견되기 이전의 삶을 중심으로 고찰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그들이 언제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부모의 직업은 무엇인지, 어떤 기관에서 교육을 받았는지, 이들을 선교사로 파견한 미국의 여성선교회는 어떤 성격의 단체였는지 등을 물을 것이다. 또한 선교사들의 전기적 정보가 당시 미국의 사회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지금까지의 근대음악사 논의에서 ‘선교사’라는 집합명사에 갇혀 있던 선교사 음악가들을 개인별로 조명하는 것이 이 논문의 일차적인 목표이다. 더 나아가 이화여전 음악과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파견된 배후에는 미국의 시민전쟁(남북전쟁) 및 산업혁명이 초래한 미국사회의 변화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한국 방문이 20세기 초 고등교육을 받은 미국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기실현의 장이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이화여전의 선교사 음악교사들

이화여전에서 재직한 선교사 음악교사들의 명단을 수록한 일차자료로는 영어로 기록된 『이화 칼리지 카탈로그』(Ewha College Catalogue, 이하 『카탈로그』)²⁾와 일본어로 기록된 『이화여자전문이화보육학교일람: 소화12년』(梨花女子專門梨花保育學校一覽: 昭和十二年)³⁾이 존재한다. 이 중에서 1925년 이화여전이 출범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발행된 『카탈로그』의 교사목록을 보면, 모두 9명의 음악담당 교사의 이름이 기

2) *Ewha College Catalogue* (Y.M.C.A. Press, 1930). Documents of the GCAH, folder 1461-4-1-:07

3) 『梨花女子專門梨花保育學校一覽 (昭和十二年)』 (1937).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재되어 있다. 이중에서 이화에 전임으로 재직 한 음악담당 선교사들은 모두 4명이다. 이들에 대해 개인별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카탈로그』의 교사명단을 통해 이화여전 음악과 교사진의 구성을 검토한다.

명단에 수록된 음악교사들의 이름과 최종학위, 담당과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⁴⁾

〔표 1〕『카탈로그』에 수록된 음악과 교사명단

이름 ⁵⁾	수학기관 ⁶⁾	담당과목
매리 E. 영 (1880- ?) ⁷⁾	Baker University, diploma in music-1907	음악
캐서린 베이커 (1879-1972)	National Training School, diploma-1901	영어, 음악
L. 조세핀 대머론 (1885-1966)	North Carolina College for Women, diploma-1905 Institute of Musical Art of New York City, diploma-1923	성악
그레이스 H. 우드 (1904- ?)	New England Conservatory of Music, diploma-1924	피아노
김애식 (1889-1950)	Ellison-White Conservatory, diploma in music-1923	화성, 피아노
윤성덕	Northwestern University, B. M.-1929	음악교육
안기영 (1900-)	Ellison-White Conservatory, diploma in music-1928	음악사, 이론
플로렌스 E. 부츠	Beaver College, diploma in music-1916	오르간, 바이올린
함화진	거문고와 가야금 공부	한국 악기

4) *Ewha College Catalogue*, 10-13.

5) 원본에는 영문이름의 알파벳 순서로 기재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독자의 편의를 위해 외국인 전임교사, 한국인 전임교사, 외국인 시간제교사, 한국인 시간제교사의 순으로 재배열하였다.

6) 교육기관의 이름은 영문표기를 그대로 옮겨 왔다.

위에 적힌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전임교사로는 독신 여성선교사⁸⁾ 4명(매리 영, 캐서린 베이커, 조세핀 대머론, 그레이스 우드)과 한국인 교사(김애식, 윤성덕, 안기영)가 3명 재직하였다. 여성선교사들 중 베이커, 우드, 매리 영⁹⁾은 이화를 설립한 미감리여선교회(the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이하 WFMS) 소속이었으며, 대머론은 예외적으로 남감리회(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 소속이었다. 한국인 교사들은 감리교 계통의 미션스쿨을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다녀온 경력을 공유하였는데, 김애식과 윤성덕은 이화 출신이고, 안기영은 배재를 졸업하였다. 이외에 함화진과 플로렌스 부츠는 시간제로 가르쳤다. 플로렌스 부츠는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의 J. L. 부츠 선교사의 아내로 장로교 소속이었었는데, 음악전공 선교사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화여전 음악과와 지속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외국인 여성이 시간제 교사로 합류하는 것은, 교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던 이화학당 초창기에 특히 자주 이루어졌다.

음악과의 선교사 전임교사 4명이 한국에 입국한 시점은 서로 달랐으나, 4명 모두 1930년대 말까지 긴 기간 동안 재직하였다. 또한 이들 이후로는 새로운 전임 선교사의 합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들이 이화여전 음악과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간 중심인물들

-
- 7) 생몰년도는 『카탈로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논의의 편의를 위해 기재하였다.
- 8) 여성선교사들은 크게 남성선교사의 부인으로 입국한 ‘선교사 부인’과 독신의 몸으로 입국한 ‘독신 여성선교사’로 나누어진다. 독신 여성선교사들 중에는 결혼 경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한국의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 부인들은, 독립된 선교사로 인정받지는 못하였지만, 중요한 선교인력으로 활용되었다. 예를 들어, *Annual Report of Korea Woman's Conference* 의 인사란을 보면, 선교사 부인들의 이름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 9) 매리 영의 경우는 성이 외자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성과 이름을 항상 함께 표기하였다.

이다. 이제 이들의 삶을 한 명씩 조명한다.

(1) 매리 영

음악과의 선교사 중 가장 먼저 한국에 입국한 사람은 매리 영이다. 1880년 10월 21일 미주리 주 캔자스시티에서 출생한 매리 영은 1919년 12월 19일 미감리여선교회 소속 선교사 자격으로 한국으로 출발하였다.¹⁰⁾ 1920년 1월 입국¹¹⁾ 당시 39세였으며, 1940년까지 20년간 이화에서 재직하였다. 그녀는 이화의 선교사 중 최초로 음악 디플로마를 소지한 인물이었다. 베이커 대학(Baker University)에서 1907년 음악 디플로마를 받았으며, 그 외에도 밀리킨 대학(Millikin University), 캔자스시티 콘서바토리,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에서 수학하였다.¹²⁾

베이커 대학은 캔자스 주 볼드윈 시에 위치한 사립대학으로 1858년 설립되었으며, 감리교회의 저명한 성경학자이자 감독이었던 오스만 C. 베이커(Osman C. Baker)를 기념하여 명명되었다.¹³⁾ 이 대학은 캔자스 주 최초의 종합대학으로, 지역 주민과 동부에서 온 기부금으로 세워졌으며, 데이비스 목사(Werter R. Davis)가 1대 총장을 역임하였다. 일리노이 주 디카투르에 위치한 밀리킨 대학은 1901년 지역 출신 사업가인 제임스 밀리킨(James Millikin)이 설립하였는데, 그는 “인문학과 고전”을 익히는 동시에 “실용적인” 면을 추구하는 학교를 만들고자 하였다.¹⁴⁾ 밀리킨 대학은 장로교회에 속해 있었지만, 모든 교단의 학생들에게 문호를 개방하였다. 위의 4개 학교의 소재지를 보면, 보스턴의 뉴잉

10) Documents of the GCAH, folder 2597-3-3:69.

11) 당시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여정은 1달 이상이 소요되었다.

12) *Ewha College Catalogue*, 13.

13) “Baker University,”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Baker_University (2013-12-11).

14) *Millikin University*, <http://www.millikin.edu/about/millikinhistory> (2013-7-7).

글랜드 콘서바토리를 제외하고는, 중서부의 캔자스 주, 미주리 주, 일리노이 주로 매리 영이 성장한 미주리 주 캔자스시티와 인접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 정보들을 종합하면 매리 영은 출신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여러 개신교 계통 교육기관에서 학업을 이어나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교육기관에 문의한 결과, 베이커 대학과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로 부터 매리 영이 수학한 기간과 수강과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베이커 대학에서 매리 영이 수강한 과목은 다음과 같다.

1898-1901: 피아노, 화성

1901-1905: 피아노, 화성, 대위, 성악문화(voice culture)

1905-1906¹⁵⁾: 피아노, 대위, 성악문화

1906-1907: 성악문화 (이미 피아노 전공을 졸업한 상태였다)¹⁶⁾

매리 영이 베이커 대학에서 수강한 기간을 더하면 총 9년으로, 18세에서 27세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학교에 다닌 셈이다. 이 정보에 기초하여, 베이커 대학의 음악 디플로마 과정이 상당히 느슨한 형태로 운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매리 영이 1906년 이후 피아노 전공을 졸업한 상태에서 성악문화를 수강하였듯이, 정규 학생 이외에도 시간제로 수업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수강한 과목은 전공악기와 화성, 대위, 성악문화의 네 과목이었다. 이를 통해 학위 과정이 아닌 디플로마 과정임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베이커 대학의 음악교육이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미국에서 다양한 수준의 음악교육을 제공하는 콘서바토리가 만들어

15) 미국식 학제에 따라 1905년 가을에서 1906년 봄 사이의 기간을 가리킨다.

16) E-mail from Jen McCollough, Baker University and Kansas Area United Methodist Archives (2013-5-27).

지고, 칼리지와 대학에 음악과정이 설치된 것은 19세기 중반 이후의 일이다. 1867년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가 문을 열었으며, 비슷한 시기에 오버린(Oberin) 콘서바토리(1865), 신시내티 콘서바토리(1867), 피바디 콘서바토리(1868), 시카고 음악 칼리지(1871) 등이 설립되었다. 이러한 콘서바토리들은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체 음악학교의 성격을 띠었다.¹⁷⁾ 아마추어와 전문음악가 지망생이 함께 교육을 받았으며, 학교마다 교육 수준의 편차가 상당히 컸다.

콘서바토리가 만들어지는 것과 약간의 시차를 두고, 칼리지와 대학에 콘서바토리와 유사한 성격의 음악과정이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통계를 보면 1890년 당시 15개의 칼리지와 대학이 음악과정을 운영하였는데, 주립 대학 중에서는 일리노이 대학이 1877년부터 최초로 음악과정을 열었다.¹⁸⁾ 10여년 후인 1899년이 되면, 음악과정을 개설한 대학은 37곳으로 늘어났다. 매리 영이 수강한 베이커 대학의 음악과정도 이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19세기 후반 이루어진 음악교육기관의 증가세는 그 자체로 음악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당시 미국 최대의 콘서바토리였던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의 경우, 1885년 등록학생이 4570명이었으며 100명의 교사가 활동하였다.¹⁹⁾ 학교 측은 “아마추어 음악가를 가르치기 위한 교사의 수요가 성장세에 있음을 간파하고, 이들을 육성한다는 기업가적인 접근”으로 학교를 운영하여 성과를 거두었던 것이다.

20세기 초 미국의 음악학교에서는 정규 학생 이외에 기악레슨이나

17) Richard Colwell, et al., “Music Education,” *The Grove Dictionary of American Music*, 2nd ed., [http://www.oxfordmusiconline.com/subscriber/article/grove/music/~\(2013-7-25\)](http://www.oxfordmusiconline.com/subscriber/article/grove/music/~(2013-7-25)).

18) 위의 글.

19) William Weber, et al., “Conservatories,” *Grove Music Online*, [http://www.oxfordmusiconline.com/subscriber/article/grove/music/~\(2013-12-11\)](http://www.oxfordmusiconline.com/subscriber/article/grove/music/~(2013-12-11)).

한두 과목의 수강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매리 영이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에서 수학한 것도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그녀가 보스턴의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에서 수강한 과목은 “1924-1925: 성악, 지휘”²⁰⁾로 두 과목에 불과하였다. 이 시기는 매리 영이 김애식²¹⁾과 함께 이화에 재직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매리 영은 안식년 휴가(furlough)²²⁾를 활용해 강의를 들은 것이다. 그녀가 성악과목을 선택한 이유는 부재하는 성악교사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보인다.

선교사들이 안식년 휴가 기간 동안 학업을 이어가는 경우는 종종 발견된다. 독신 여성선교사들은 고등교육을 받은 존재라는 자부심이 강하였고, 자기실현을 위해 선교사직을 선택한 사람들이었기에 학업에 대한 열정은 이들에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매리 영은 1946년 2월 작성한 은퇴 선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지에서 자신의 취미를 “가르치는 일, 더 잘 가르치기 위해 공부하는 일”이라고 적을 정도로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²³⁾

캐서린 베이커 역시 같은 시기에 똑같은 설문지를 작성한 것을 보면, 이 설문은 선교회 차원에서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설문의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름, 주소, 생년월일, 외국으로 처음 떠난 날짜, 선교지를 적게 되어 있고, 다음으로 선교지로부터 떠난 날짜, 안식년 휴가를 연장한 적이 있는지를 묻고 있다. 이어서 현재 소속된 교회와 건강 상태, 혼자서 혹은 친구나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지, 관심사는 무엇인지를 질문하였다. 또한 질문과는 관계없이 은퇴 시점의 나이와 근무기간, 연금의 액수를 적도록 하였다. 질문의 내용을 종합하면 은퇴 선교사들의 연

20) E-mail from Maryalice Perrin-Mohr, Spaulding Library, New England Conservatory (2013-7-11).

21) [표 1]에 김애식이 포함되어 있다.

22) 선교사들은 보통 5년 정도에 한 번씩 안식년 휴가로 미국에 돌아갔다.

23) Documents of the GCAH, folder 2597-3-3:69.

금을 확인하고, 은퇴 후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데 목적을 둔 것으로 보인다.

매리 영의 경우는 “총 27년을 일하였고, 600불의 연금을 받는” 것으로 적혀 있다. 답변 내용 중 흥미로운 것은 이름을 “Young. Mary E, Mrs Billings”로 기재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선교사 파견 당시에는 독신이었으나, 그 이전에 결혼을 한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²⁴⁾ 분명한 것은 그녀는 결혼 경험과 상관없이 한국에서 “매리 영”이라는 이름을 고수하였다는 점이다.

(2) 캐서린 베이커

매리 영에 이어 이화에 합류한 선교사는 미감리여선교회 소속의 캐서린 베이커이다. 그녀는 1879년 12월 25일 인디애나 주에서 출생하였으며, 1972년 10월 14일 세상을 떠났다.²⁵⁾ 1927년 9월 입국 당시 47세였으며, 1927년부터 1940년까지 13년 동안 재직하였다. 내셔널 트레이닝 스쿨을 1901년 졸업하였으며, 그 외에도 신시내티 콘서바토리, 워싱턴 대학교에서 수학하였다.²⁶⁾

이들 기관 중 캐서린 베이커가 최초로 수학한 내셔널 트레이닝 스쿨은 소재지가 표기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1880년대 세워지기 시작한 ‘트레이닝 스쿨’(training school)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1880년대에 들어 다른 문화권에서 선교활동을 펼치는 인력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세미나리와는 다른 형태의 교육기관

24) 결혼 날짜를 확인할 수 없기에 한국에서 귀국한 후 결혼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60세에 한국을 떠났으므로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25) Documents of the GCAH, folder 2591-5-7:06.

26) Ewha College Catalogue, 10.

이 만들어졌다.²⁷⁾

1881년 침례교 계통 선교회(the Woman's American Baptist Home Missionary Society)에서 시카고에 침례교 선교사 트레이닝 스쿨(the Baptist Missionary Training School)을 세웠다. 또한 1889년 에멀린 드라이어(Emmeline Dreyer)는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Moody Bible Institute)를 설립하는 등 교단별로 트레이닝 스쿨이 세워졌다. 트레이닝 스쿨은 특히 대부분의 세미너리(theological seminary)에 입학이 허용되지 않았던 여성들에게 성경과 신학을 교육하였으며, 실용적인 훈련도 겸하였다.

미감리여선교회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은 루시 라이더 마이어(Lucy Rider Meyer)가 1885년 문을 연 시카고 트레이닝 스쿨(Chicago Training School)이었다. 매리 영이 이화에 오기 전에 이화학당에서 음악을 지도하였던 롤라 우드(Lola Wood, 1881- ?)가 시카고 트레이닝 스쿨 출신이었다.

시애틀의 워싱턴 대학은 1861년 설립되었으며, 서부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공립 대학 중 하나이다.²⁸⁾ 신시내티 콘서바토리는 1867년 오하이오 주의 신시내티에 설립된 사립학교로, 젊은 여성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다니는 피니싱스쿨(finishing school)로 출발하였다.²⁹⁾ 여성교육 운동의 지도자 중 하나인 클라라 바우어(Clara Baur)가 창립하였다.

베이커는 한국에 오기 전에 이미 중국에서 선교사로 20년간을 재직하였다. 26세였던 1907년에 중국으로 처음 파견되었으며, 1907-12년까지

27) 트레이닝 스쿨에 대한 설명은 D. Robert, *American Women in Mission: a Social History of Their Thought and Practice* (Macon: Mercer University Press, 1997), 152-156을 참조.

28) *University of Washington*, <http://www.washington.edu/discover> (2013-7-7).

29) "Cincinnati Conservatory of Music,"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Cincinnati_Conservatory_of_Music (2013-12-11).

푸저우(福州)에서 활동하였고, 1912-15년 사이에는 학업을 위해 미국에 체류하였으며,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 1915년부터 1927년까지 난창(南昌)의 볼드윈여학교에서 영어와 음악을 가르쳤다. 1930년의 인구조사에 의하면, 남편과 사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³⁰⁾

베이커는 신시내티 콘서바토리에서 1922년 1월에서 3월까지 성악, 색소폰, 합창을 수강하였다.³¹⁾ 이 시기는 그녀가 중국의 볼드윈여학교에 재직할 당시이다. 답신을 보내준 담당자에 의하면, “초기에 콘서바토리를 다닌 학생들 중에는 정식으로 디플로마 과정을 밟지 않고 교수에게 개인지도를 받은 학생들이 많았는데, 베이커도 같은 경우일 것”으로 보인다. 베이커가 여성들이 흔히 다루지 않는 악기인 색소폰을 배웠다는 점이 흥미롭다.

마찬가지로 워싱턴 대학교에서도 단기간 동안 몇 개의 과목을 등록하였다. 1차로 이화에 오기 직전인 1927년 여름, 2차로 한국 체류 중인 1935년 겨울과 여름 쿼터에 수강하였는데, 음악 강의가 주를 이루었고, 영어 작문과 스칸디나비아어를 한 번씩 들었다.³²⁾ 베이커는 설문지에서 “관심사는 시와 음악이다”라고 기재하였으며,³³⁾ 실제로 9권의 시집을 출간하였다.³⁴⁾ 워싱턴 대학에서 수강한 과목들은 문학과 언어에 대한 베이커의 관심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다.

캐서린 베이커는 이화를 떠나 미국으로 귀국한 이후 캘리포니아 패사디나(Pasadena) 소재의 ‘선교사의 집’(home for missionaries)에 입주하

30) “1930 United States Federal Census Record for Catherine Baker,”

<http://search.ancestrylibrary.com/cgi-bin/sse.dll?h=90951588&db=1930usfedcen&indiv=try> (2013-12-11).

31) E-mail from Kevin Grace, Head and University Archivist, Archive & Rare Books Library, University of Cincinnati (2013-6-18).

32) E-mail from Office of the Registrar, University of Washington (2013-9-12).

33) Documents of the GCAH, folder 2593-3-3:12.

34) Documents of the GCAH, folder 2591-5-7:06.

였으며,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였다.³⁵⁾ 1943년에서 1964년까지 그곳에서 멀지 않은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강의를 듣고, 페사디나 시립 칼리지 평생교육원에서 가르치면서 배우고 가르치는 활동을 이어갔다.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취미라는 매리 영과 마찬가지로, 베이커 역시 말년까지 교육활동을 이어갔다.

(3) 조세핀 대머론

조세핀 대머론은 캐서린 베이커와 같은 해에 이화의 교사로 합류하였다. 대머론은 1885년 8월 20일,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출생하였으며, 1966년 10월 11일 사망하였다.³⁶⁾ 그녀는 남감리회³⁷⁾ 소속 선교사로 1927년 9월 한국에 도착하였으며, 입국 당시 42세였다. 이화에서는 1938년까지 11년간 재직하였고, 성악을 지도하였다. 대머론은 이화에서 최초로 맞이한 성악 전공 교사였다.

대머론은 1905년 노스캐롤라이나 여자 칼리지(North Carolina College for Women)를 졸업하였으며,³⁸⁾ 1907-08년까지 필라델피아에서 성악을 공부하였다. 1913-14년까지 컨벌스 칼리지(Converse College) 음악과정을 수학하였으며, 1923년에는 뉴욕시 음악 인스티튜트(Institute of Musical Art, N.Y.C.) 성악과를 졸업하였다. 1923-24년까지 뉴욕에서 음악 공부를 계속하였으며, 이화여전에 재직할 당시 안식년 휴가 기간이었던 1932-33년에는 뉴욕에서 성악을 공부하였다.³⁹⁾ 노스캐롤라이나

35) Documents of the GCAH, folder 2591-5-7:06.

36) Documents of the GCAH, folder 1468-3-3:17.

37) 1771년 이후 존속한 감리교회(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는 미국 내 정치 상황으로 인해 1844년 남북감리교회로 분리되었다가, 1939년 Methodist Church로 재통합되었다.

38) E-mail from Erin Lawrimore, University Archivist,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Greensboro. 유감스럽게도 이곳에서는 졸업년도를 제외한 정보는 확인할 수 없었다.

여자 칼리지⁴⁰⁾는 찰스 D. 맥아이버(Charles D. McIver)의 주도로 설립되었다. 1891년 주립 사범/기술학교로 인가를 받았으며, 1892년 10월 문을 열었다.⁴¹⁾ 컨벌스 칼리지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위치하며, 1889년 스파르탄버그 시민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주도로 문을 열었다. 개교 당시 학생은 168명, 교수는 16명이었다.⁴²⁾

대머론의 경우, 매리 영과 캐서린 베이커에 비해 보다 전문적인 음악가 훈련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성악이라는 하나의 전공에 집중하고 있으며, 1905년 출신지 근처의 칼리지를 졸업한 이래 1924년까지 여러 경로로 성악공부를 이어갔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로 파견되기 이전에 여자 칼리지에서 성악을 지도한 경험을 갖고 있다.⁴³⁾ 대머론의 파견이 결정된 직후인 1927년 2월 남감리회 미국 선교부로 보낸 편지에서, 엘리스 아펜젤러 교장은 “그녀가 미국에서 학기를 마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우리는 4월에 새 학기를 시작한다. (...) 그녀가 입국하기에 가장 용이한 시간은 여름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고 있다.⁴⁴⁾ 이를 통해 대머론이 선교사로 파견되기 직전까지 미국의 학교에서 가르쳤음을 알 수 있다.

대머론과 다음에 소개할 피아노 전공 그레이스 우드의 영입은 이화여자 전 음악과의 교육 수준을 상당히 끌어올렸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학교 인가 이후에도 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미국에서 훈련받은 교사를 영입

39) Documents of the GCAH, folder 1468-3-3:17.

40) 현재 이 학교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Greensboro)로 통합되었다.

41)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Greensboro,”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UNCG> (2013-12-03).

42) “Converse College,”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Converse_College (2013-12-03).

43) Dameron, Letter to Mrs. Avann. Documents of the GCAH, folder 2597-4-3:14.

44) A. Appenzeller, Letter to Miss Case. Documents of the GCAH, folder 2597-4-5:14.

하는 것은 아펜젤러 교장의 숙제였다. 1927년 9월 29일 발송한 아펜젤러의 편지에는 다음의 내용이 적혀있다.

[선교회의] 해외부가 이화 칼리지의 상황, 교육의 수준, 우리가 왜 미국에서 훈련받은 교사를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식민지] 정부 기준에 맞는 ‘자격을 갖춘’ 교사를 일정 수 이상 보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화 칼리지는 ‘인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칼리지로 정식 등록되지 않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졸업생들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⁴⁵⁾

조세핀 대머론의 경우 남감리회 선교부에 제출한 해외 선교사 지원서가 보관되어 있었다.⁴⁶⁾ 대머론이 제출한 지원서에서, 선교사 파견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내용들을 살펴보겠다. 먼저 지원서를 작성한 날짜는 1926년 10월 18일인데, 이로부터 4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화여전의 엘리스 아펜젤러 교장은 선교부로 대머론의 귀국 일정을 의논하는 편지를 보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⁴⁷⁾ 불과 4개월 사이에 선교사의 파견지가 결정되고, 파견 시기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진 것을 볼 때 대머론을 이화에 영입하는 절차가 매우 신속하게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머론의 아버지는 농부이자 보험 판매원이었다. 이를 통해 대머론이 도시 출신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어지는 질문과 답 중에서 음악교사의 사역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을 보면 아래와 같다.

45) A. Appenzeller, Letter to Mrs. Eveland. Documents of the GCAH, folder 2597-4-3:11.

46) “Application Form,” Documents of the GCAH, folder 1468-3-3:17.

47) A. Appenzeller, Letter to Miss Case. Documents of the GCAH, folder 2597-4-5:14.

피아노, 오르간 또는 다른 악기들을 연주할 수 있습니까? 피아노.
 이 악기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네. 노래를 하거나 합창단을 지도할 수 있습니까? 네. (...)
 교육, 전도, 의료 중 어떤 사역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까? 음악과 복음 전도를 위한 노래 가르치기.
 교육 사역 중 어느 학년과 분야가 [본인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노래 가르치기.
 가르치는 일과 어린이들을 원래부터 좋아합니까? 네.⁴⁸⁾

위의 질문들은 여성선교사를 필요로 하는 활동 분야를 암시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23번 질문을 통해 우리는 음악전공이 아닌 여성선교사에게도 어느 정도의 음악적 능력, 특히 교회 안에서의 음악활동과 관련된 자질을 갖추는 것을 기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여성선교사들이 투신하는 교육, 전도, 의료라는 세 가지 영역 중에서도 교육 분야 특히 어린이와의 접촉은 기본적으로 요청되는 자질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지원서에는 “5년이 되기 전에 선교사직을 그만둘 경우, 여행을 위해 받은 물품과 경비를 모두 반환하겠습니까?”라는 질문도 포함되어있어, 선교사직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도 적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4) 그레이스 우드

그레이스 우드는 1904년 뉴욕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의 직업은 기계공(mechanics)이었다.⁴⁹⁾ 1929년 25세의 나이로 미감리여선교회 소속 선

48) “Application Form,” Documents of the GCAH, folder 1468-3-3:17.

49) “1930 United States Federal Census Record for Grace Wood,”

http://search.ancestrylibrary.com/cgi-bin/sse.dll?gl=ROOT_CATEGORY&rank=1&new=1&so=3&MSAV=0&msT=1&gss=ms_f-2_s&gsfn=grace&gsln=wood&msbdy=1904&uidh=000. 이 문서에는 가족뿐 아니라 하숙생까지 기재되어 있다. 우드의 집

교사로 한국에 왔다. 입국 당시에는 미혼이었으나 후에 결혼을 한 것으로 보인다.⁵⁰⁾ 이화에는 1929년부터 1955년까지 재직하였는데,⁵¹⁾ 1940년 이후에는 한국의 정치상황에 따라 출국과 입국을 반복하였다.

우드는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를 1924년 졸업하였으며, 뉴욕 주립 사범 칼리지(New York State College for Teachers)에서 공부하였다. 선교사로 근무하기 전에 주소지인 뉴욕에서 5년 동안 피아노 개인지도를 하였다.⁵²⁾

뉴욕 주립 사범 칼리지는 뉴욕 주립 ‘노멀 스쿨’이라는 명칭으로 1844년 5월 7일 문을 열었다. 29명의 학생과 4명의 교사로, 버려진 철도 창고에서 출발한 이 학교는 1890년 초 뉴욕 주립 노멀 ‘칼리지’(New York State Normal College)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1905년에는 4년제 커리큘럼을 갖추고 학사학위를 수여하기 시작했다. 1913년에는 학생이 590명, 교사가 44명에 이르렀으며, 석사과정을 설립하였으며, 그레이스 우드가 수학한 ‘뉴욕 주립 사범 칼리지’(New York State College for Teachers)로 다시 이름이 바뀌었다. 이 학교의 전개과정을 보면, 디플로마를 수여하는 학교에서 학사학위, 석사학위를 부여하는 상위기관으로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보듯이 미국의 대학은 19세기 설립 이후 20세기 전반에 이르기까지 질적·양적인 면에서 성장을 거듭하며 상위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하였다.

그레이스 우드가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어에서 수강한 기간과 과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에는 2명의 여성 하숙생이 머물렀다. 당시 하숙을 치는 것은 중산층 기혼여성들에게 주어진 거의 유일한 돈벌이 수단이었다.

50) Marion Conrow, *Our Ewha: A Historical Sketch of Ewha Womans University*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1956), 72에는 Mrs. W. Gericke로 기재되어 있다.

51) Conrow, *Our Ewha*, 52.

52) “Grace Wood - Korea,” Documents of the GCAH, folder 1469-7-8:13.

- 1922. 1학기: 피아노, 솔페지, 화성, 피아노 초견
- 1922. 2학기: 피아노, 솔페지, 화성, 피아노 초견
- 1923. 1학기: 피아노, 솔페지, 화성, 이론, 무대매너, 피아노 교수법,
피아노 초견
- 1923. 2학기: 피아노, 솔페지, 화성, 이론, 무대매너
- 1924. 1학기: 피아노, 솔페지, 분석, 팬터마임, 피아노 교수법, 앙상블
- 1924. 2학기: 피아노, 분석, 피아노 교수법, 앙상블⁵³⁾

그레이스 우드는 3년 과정을 마치고 피아노 교사 디플로마(diploma in piano as teachers)를 받았다.⁵⁴⁾ 수강한 과목들을 보면, 피아노, 앙상블, 솔페지, 화성, 이론, 분석, 피아노 초견, 피아노 교수법, 무대매너, 팬터마임의 10과목이다. 이들을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보면, 전공레슨(피아노)과 앙상블, 음악가의 소양을 기르는 기초과목(솔페지, 화성, 이론, 분석, 피아노 초견), 기타(교수법, 무대매너, 팬터마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음악대학에서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전공수업과 비교할 때, 음악사나 미학 등의 음악학 과목이 결여되어 있지만, 피아노 초견이나 무대매너, 팬터마임 같은 과목은 오히려 현재 교과과정에서 추가할 만한 유용한 과목들이다.⁵⁵⁾

그레이스 우드의 경우 1953년 이후 작성한 이력서가 남아 있어, 1940

53) E-mail from Maryalice Perrin-Mohr, Spaulding Library, New England Conservatory (2013-6-29).

54) E-mail from Maryalice Perrin-Mohr, Spaulding Library, New England Conservatory (2013-6-29).

55)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의 아카이브에는 초기 졸업생의 수강카드(class card) 뿐 아니라 연주회 프로그램이 소장되어 있었다. 아카이브에서 확인해준 우드의 연주회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작품은 다음과 같다: Chopin, Etude, Ab 장조 [pupils' recital, 1923-03-17]; MacDowell, Prelude, E minor [Thursday Recital, 1923-12-20]; Mozart, Trio for Piano, Violin, and Viola, E^b major (K. 498), 1st movement [pupils' recital, 1924-2-16]; Liszt, Eclogue, A^b major, the first book of Années de Pèlerinage [thursday recital 1924-5-15].

년 귀국 이후의 행적을 파악할 수 있었다.

1942-1946 비서(1년)와 음악, 수우 베넷 칼리지(켄터키 주 런던)

1947-1950 영어 비서와 음악, 이화여자대학교

1950-1952 비서 업무(도쿄)

1952-1953 비서와 비서훈련과정, 이화여자대학교(부산)⁵⁶⁾

우드의 1940년 벌어진 선교사의 철수 이후, 1942년에서 1946년까지 미국의 칼리지에서 4년간 비서와 음악교사로 활동하였으며, 해방 이후 여자대학으로 승격한 이화로 돌아와 영어 비서와 음악을 담당하였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한 이후 일본에서 2년간 비서로 일하였으며, 1952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피난 중 부산에 문을 연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비서와 비서훈련과정을 담당하였다. 1947년 이후 이화로 돌아와 교육활동을 이어가고자 한 우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음악과에 안착하지 못하고 1955년 이화를 떠났다.

3. 미감리여선교회(WFMS)와 독신 여성선교사의 사역

이화여전 음악과의 선교사들은 공통적으로 독신 여성선교사의 신분으로 한국에 왔다. 여기에서는 이들을 파견한 여성 선교회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활동을 펼친 미감리여선교회(WFMS)와 독신 여성선교사의 사역을 미국여성의 사회진출이라는 논점과 연결해서 검토한다.

미국사회에서 가족 성원 간의 경제적 역할이 중대한 변화를 겪은 것은 산업혁명 이후이다.⁵⁷⁾ 산업혁명 이전의 미국사회에서 가정은 곧 작

56) "Grace Wood - Korea," Documents of the GCAH, folder 1469-7-8:13.

57) 산업혁명이 미국 중산층 여성의 삶에 미친 변화에 대해서는 Steven D. McLaughlin et al., *The Changing Lives of American Woma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업장이었다. 작업의 종류는 농사(대부분의 미국 가정이 여기에 해당하였다), 수공업, 장사 등으로 달랐지만, 가정이 일터라는 점은 동일하였다. 남성, 여성, 아동이 서로 다른 일을 맡고 있었지만, 이들의 노동이 합쳐져 가정경제가 유지되고 가정에 필요한 자원이 생산되었다. 이러한 삶의 형태는 남북전쟁 전후 이루어진 미국의 산업혁명을 계기로 큰 변화를 겪었다. 이제 미국인의 생산활동은 가정이 아닌 공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가정과 일터가 분리된 것이다.

산업화 초기에는 남성 노동력의 부족으로 인해, 여성과 아동이 공장에서 저임노동자로 고용되었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하고 이민 노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과 아동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다. 그 결과 1830년대에 이르면 중산층 여성들은 더 이상 공장에 고용되지 않게 되었다. 즉 모성이 중산층 여성을 위한 전업이 된 것이다.⁵⁸⁾

“여성이 머물 곳은 가정”이라는 아이디어가 성립한 것은 이러한 변화의 결과였다. 19세기 중후반에 퍼진 “진정한 여성성 숭배”(cult of true womanhood)는 ‘여성’을 가정에 머물며, 경건하고, 순결하며, 복종하는 존재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상이 전체 미국 여성에게 구현될 수는 없었다. 여성이 가정에 머물기 위해서는 남편이나 아버지의 수입이 가정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수준이어야 했으며, 이는 중산층 백인 가정에서나 가능한 상황이었다. 산업화 이후 저소득층의 여성들은 오히려 가정 외부(공장 또는 다른 사람의 가정)에서 노동의 기회를 찾아가게끔 지원해야만 했다.

중산층 여성이 생산 활동에서 자유로워진 결과, 중산층 가정의 딸들이 고등교육기관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이런 현상은 특히 여성고등의 기회가 확대되는 19세기 말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다음은 남성과 여성에게 문호를 개방한 미국 칼리지의 비율을 정리한 표이다. 이화여

Press, 1988), 14-27 참조.

58) 위의 책, 17, 20.

전 음악과 선교사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1870-1930년 사이의 기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남성과 여성에서 입학할 허용한 미국의 칼리지의 비율 1870-1930⁵⁹⁾

년	기관의 수	퍼센트 비율		
		남성 칼리지	여성 칼리지	공학
1870	582	59	12	29
1890	1082	37	20	43
1910	1083	27	15	58
1930	1322	15	16	69

위의 표를 보면, 남북전쟁이 끝난 직후인 1870년 당시 미국의 고등교육기관의 수는 582개였다. 이 중에서 59퍼센트는 남성학교였고, 12퍼센트는 여성학교, 29퍼센트는 공학이었다. 이로부터 20년 동안 고등교육기관의 수는 두 배 가까이 증가하여, 1082개의 기관이 존재하였다. 이 중에서 여성들이 입학할 수 있는 기관이 63퍼센트를 차지하므로, 약 681개의 기관이 여성에게 입학할 허용한 셈이다. 즉 이 시기가 여성들의 고등교육 기회가 급격히 확대된 시기이다.

다음 20년간의 수치를 보면, 교육기관의 수 자체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지만, 남성 칼리지의 비율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73퍼센트에 해당하는 790개의 기관이 여성을 받아들였다. 음악과의 선교사 중 1880년경에 태어난 3명이 고등교육을 받은 기간은 1890-1910년 사이로, 이들은 대거 확대된 여성고등교육의 수혜를 받은 세대임을 확인할 수 있다.

1910년 당시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한 여성의 수는 14만 명으로, 이는 전체 등록의 39.6퍼센트에 해당한다.⁶⁰⁾ 이 시기에 이르면 적어도 수적

59) Babara M. Solomon, *In the Company of Educated Women* (Yale University Press, 1985), 44.

으로는 고등교육을 받은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거의 동등해졌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이다. 1870년 당시 등록학생 중 여성의 비율이 21퍼센트였던 것과 비교하면, 여성의 고등교육이 얼마나 급속히 확대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고등교육을 받은 젊은 여성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난 반면, 이들에게 주어진 직업 기회는 그리 많지 않았다. 20세기 접어들어서도 여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종은 교사, 간호사 등 전통적인 여성의 직업과 사회복지 종사자(social worker), 도서관사서 등이었다.⁶¹⁾ 이 중에서 칼리지 졸업생들이 가장 선호한 분야는 교직이었다.

여성들에게 주어진 직업 기회가 제한적이었을 뿐 아니라, 중산층 여성에게 직업인으로서의 경력은 결혼 이전의 임시적인 상태로 간주되었다. 20세기 전반에 걸쳐 대부분의 중산층 여성은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었다. 이런 경향은 상대적으로 교육을 잘 받은 여성들에게도 해당되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독신으로 경력을 추구하는 것보다 결혼과 모성을 선택하였던 것이다.

한편 남북전쟁(1861-65)과 산업혁명 이후 중산층 여성들은, 직업적인 추구와는 별개로,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남북전쟁은 다수의 여성들로 하여금 군인을 위한 자선활동에 참여하게 유도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은 전쟁 이후에도 사회활동을 이어가도록 하는 동력을 낳았다.⁶²⁾ 이 시기 중산층 여성들은 자녀를 낳고 기르는 전통적인 여성의 젠더역할을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하여 활동영역을 넓혀갔다. 즉 경제와 정치를 남성의 영역, 종교와 도덕을 여성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국내의 사회개혁운동과 해외선교운동을 벌여나갔다. 선교

60) 고등교육기관 등록 학생 중 여성의 비율은 Solomon, *In the Company of Educated Women*, 63 [표 2]를 참조.

61) 위의 책, 126.

62) Dana L. Robert, *American Women in Mission: a Social History of Their Thought and Practice* (Mercer University Press, 1997), 129.

활동의 일환으로 1860년대 말 각 교단별로 여성해외선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였는데, 1900년경에는 40개 이상의 여성선교회가 설립되었다.⁶³⁾ 이화학당/이화여전을 설립하고, 음악과의 선교사들을 파견·지원한 미감리여선교회(WFMS)도 이중 하나였다.

미감리여선교회는 1869년 미감리회(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의 지도적 여성들에 의해 설립되었다.⁶⁴⁾ 선교회는 설립 이후 1939년 교회 내의 다른 선교기구들과 합병되기 전까지 70년 동안, 파견 선교사의 수와 해외로 보낸 자금의 규모, 사역 범위의 확장의 면에서 성공적인 활동을 펼쳤다. 1870년 4,546불이었던 모금액은 1939년까지 모든 지부를 통틀어 총 61,229,889불에 이르렀으며, 이 기간 동안 선교회가 모집하고 훈련시켜 현장에 파견하고 지원한 독신 여성선교사들은 총 1,572명이었다.

설립 당시 보스턴에서 출발한 선교회는 조직을 확장하면서, 미국 각지—뉴잉글랜드, 뉴욕,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신시내티, 노스웨스턴, 미니애폴리스, 토피카, 퍼시픽, 컬럼비아리버—에 ‘지부’(branches)를 설치하였다. 자원봉사자에 의해 운영된 각 지부는 해외 선교를 희망하는 젊은 여성들을 모으고, 선교사와 해외의 선교기관을 지원하는 자금을 모금하는 거점으로 기능하였다. 선교회의 재정은 철저히 지부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 어떤 선교사가 뉴잉글랜드 지부에 의해 파견되었다면, 그 선교사의 급료는 계속적으로 뉴잉글랜드 지부에서 지불하였다. 하나의 지부에서 감당하기에 벅찬 대규모의 지출이 요구될 경우, 여러 지부가 협력하여 경비를 충당하였다. 예를 들어 새로운 학교 건물이 필요할 경우 뉴욕 지부가 부지를 매입하고, 필라델피아 지부가 공사

63) Robert, *American Women in Mission: a Social History of Their Thought and Practice*, 129.

64) 미감리여선교회(WFMS) 관련 정보는 Nolan B. Harmon, *The Encyclopedia of World Methodism* (United Methodist Publishing House, 1974), 2588 참조.

비를 지불하는 식으로 협업이 이루어졌다. 각 지부별 수입과 지출 내역, 선교지에 존재하는 선교회 소속 부동산의 평가액은 매년 발행되는 선교회의 연차보고서(annual report)의 뒷부분에 꼼꼼하게 기재되었다.

미감리여선교회는 해외 세계 전역에 ‘해외연회’(foreign conference)를 세우며 글로벌한 활동을 펼쳤다.⁶⁵⁾ 1918년 발행된 선교회의 연차보고서⁶⁶⁾에 의하면, 인도에 6개, 중국에 7개, 일본에 2개의 해외연회가 설치되었으며, 그 이외에는 버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한국, 멕시코, 남아메리카, 불가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북아프리카, 로디지아(Rhodesia), 포르투갈령 동아프리카, 서아프리카 해외연회를 두었다.

각 해외연회 현황을 보여주는 통계의 항목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해외연회 소속 인력과 여성신자의 수, 2)선교회 소속 교육기관의 수, 3)고아원 등 사회복지시설의 수, 4)의료기관의 수를 기재하였다. 1, 2번에 포함된 인원은 모두 여성이었다. 위의 구분을 통해 선교회의 활동이 복음전도, 교육, 사회복지 및 의료분야로 나누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외형적인 것일 뿐, 이 세 분야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세계 복음화에 공헌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 네 항목은 다시 다수의 소항목으로 나누어진다. 예를 들어 해외연회 소속 인력의 유형을 보면, WFMS 선교사, 활동 중인 선교사 부인, 외국인 또는 유라시아인 보조원, 토착민 인력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

또한 선교회 소속 교육기관의 유형을 보면, 성경학교 혹은 성경교실, 전도부인양성학교, 칼리지 수준의 학교, 영어기숙학교, 토착어 혹은 영어/토착어 기숙학교, 어린이 주일학교, 매일학교, 유치원, 산업학교로

65) 연회(annual conference)는 감리회 조직의 기본단위이다. 하나의 연회 산하에는 특정 지역의 모든 감리교회가 속하였다.

66) *Following the Great Command: Being the Jubilee Number, 49th Annual Report of the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MEC, 1918), 236-242.

세분하여 기재하였다. 선교회는 선교지역의 특성에 맞게 적합한 형태의 교육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예를 들어 칼리지 과정을 설치한 해외연회는 인도, 중국, 한국, 일본의 네 곳뿐이었다. 반면 영어기숙학교를 설치한 곳은 인도와 버마, 멕시코, 남아메리카 해외연회였으며, 중국, 한국, 일본에는 토착어 혹은 영어/토착어 기숙학교를 설치하였다.

이상에서 확인하였듯이 미감리여선교회는 철저히 여성의 세계였다. 선교회는 ‘여성을 위한 여성의 사역’(Woman’s Work for Woman)이라는 표어에 걸맞게, 여성들이 모금한 기금으로 여성인력을 활용하여 선교지의 여성에게 복음과 문명을 전하였다. 선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된 배후에는 19세기 말에 크게 증가한 고등교육을 받은 중산층 여성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다. 선교회 활동은, 그들이 미국 내에서 활동하거나 선교지로 떠나가거나에 관계없이, 신앙심 깊은 교육받은 중산층 개신교 여성들에게 합당한 역할이었다.

특히 선교사로 ‘이교도’의 나라에 파견된 독신여성들은 결혼 이후 직업적인 경력을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미국사회를 떠나, 선교지에서 자기실현이라는 사회적 욕구를 펼쳐나갈 수 있었다.

선교지는 본국에 비해 사회적 제약과 남성교역자 중심으로 운영된 교단의 권위에서 비교적 자유로웠기 때문에, 독신 여성선교사들은 이곳에서 미국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남성들에게만 허용되었던) 다양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다. 일차적으로 ‘여성들의’ 해외연회가 존재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선교지역에서의 미국인 여성인력의 위상을 잘 드러내준다. 물론 여성해외연회가 남성 교역자들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으로 활동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분리된 기구를 설치하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펼쳐나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보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이화학당/이화여전의 경우 1886년 개교 이후 1939년까지 미국인 선교사들이 당장/교장을 역임하였다. 이는 20세기 초의 미국에서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독신 여성선교사들은 선교지의 여성들을 만나거

나 여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설교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나아가 안수자격을 부여받는 경우도 있었다(감리회의 경우 1930년 한국에서 15년 이상 활동한 여성성교사들에게 안수자격을 부여하였다).

4. 글을 맺으며

이상에서 필자는 미국 연합감리회아카이브에서 수집한 일차자료를 기초로, 이화여전 음악과에서 선교사 교사로서 재직한 매리 영, 캐서린 베이커, 조세핀 대머론, 그레이스 우드의 전기적 정보를 정리하였다. 또한 미감리여선교회(WFMS)와 독신 여성선교사의 사역을 미국여성의 사회진출과 연결하여 고찰하였다.

위에서 확인하였듯이 이화여전 음악과의 외국인 교사들은 19세기 말 급속히 확대된 음악교육기관에서 음악적 소양을 쌓았다. 이들이 받은 음악교육의 수준을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면 대머론과 우드가 보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매리 영은 10대 말에서 20대 초에 이르는 기간 동안 피아노와 기초적인 이론교육(화성과 대위)을 받았으며, 베이커의 경우는 음악 디플로마 소지자가 아니었다. 칼리지에서 성악을 지도한 대머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 내에서 활동할 경우 아마추어 음악가를 지도하는 음악교사 혹은 아마추어 음악가의 역할이 주어졌을 것이다. 이들의 한국 입국 역시 음악가를 파견하거나 초빙하는 단체가 아닌, 선교사를 파견하는 여성 선교회에 의해 이루어졌다.

한편 식민지 시기 한국에서, 이들은 유일한 여성/음악 고등교육기관인 이화여전 음악과의 미국인 ‘교수’⁶⁷⁾로 활동하였다. 이들은 서양음악 유입 초창기의 한국사회에서 전문 음악가의 위상을 차지하였으며, 음

악과의 한국인 교수진을 당대 최고의 남녀 음악가로 채워나갔다. 또한 음악과의 학생들에게는 취업과 유학의 열쇠를 쥐고 있는 권위 있는 스승이었다. 즉 이들은 형성기에 접어든, 식민지 한국 서양음악계의 권력이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둘 때, 독신 여성선교사의 길은 고등교육을 받은 미국 여성에게 자기실현의 기회였다. 자기희생에 바탕을 둔 이타적인 선교사로서의 활동이 본국의 사회 통념 하에서는 불가능하였던 전문직 여성으로서의 경력을 추구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점은 역설적이다. 이러한 역설을 가능하게 한 것은 ‘식민지 조선’이라는 시공간이었다.

67) 선교사들이 스스로를 ‘teacher’로 부른 것과는 달리, 한국의 언론은 이화여전 ‘교수’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다.

참고문헌

일차자료

Documents of the General Commission on Archives and History, the
United

Methodist Archive, Drew University, Madison, NJ.

Following the Great Command: Being the Jubilee Number, 49th Annual Report of the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MEC, 1918.

“1930 United States Federal Census Record for Catherine Baker,”
<http://search.ancestrylibrary.com/cgi-bin/sse.dll?h=90951588&db=1930usfedcen&indiv=try>.

“1930 United States Federal Census Record for Grace Wood,”
http://search.ancestrylibrary.com/cgi-bin/sse.dll?gl=ROOT_CATEGORY&rank=1&new=1&so=3&MSAV=0&msT=1&gss=ms_f-2_s&gsfn=grace&gsln=wood&msbdy=1904&uidh=000.

Mary Young, “Reports of Music Department: June 1937.” 이화역사관, VII-B-7-8-4.

Ewha College Catalogue. Y.M.C.A. Press, 1930.

『梨花女子專門梨花保育學校一覽 (昭和十二年)』. 1937.

논저

Colwell, Richard et al. “Music Education.” *The Grove Dictionary of American Music, 2nd ed.* <http://www.oxfordmusiconline.com/subscriber>

/article/grove/music/~ (2013-7-25).

Harmon, Nolan B. *The Encyclopedia of World Methodism*. United Methodist Publishing House, 1974.

Robert, Dana L. *American Women in Mission: a Social History of Their Thought and Practice*. Macon: Mercer University Press, 1997.

Weber, William et al. "Conservatories," *Grove Music Online*,
<http://www.oxfordmusiconline.com/subscriber/article/grove/music/~>.

기타

E-mail from Erin Lawrimore, University Archivist,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Greensboro.

E-mail from Jen McCollough, Baker University and Kansas Area United Methodist Archives (2013-5-27).

E-mail from Kevin Grace, Head and University Archivist, Archive & Rare Books Library, University of Cincinnati (2013-6-18).

E-mail from Maryalice Perrin-Mohr, Spaulding Library, New England Conservatory (2013-7-11).

E-mail from Office of the Registrar, University of Washington (2013-9-12).

Millikin University, <http://www.millikin.edu/about/millikinhistory> (2013-7-7).

University of Washington, <http://www.washington.edu/discover> (2013-7-7).

"Baker University,"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Baker_University (2013-12-11).

"Cincinnati Conservatory of Music,"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Cincinnati_Conservatory_of_Music (2013-12-11).

“Converse College,”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Converse_College (2013-12-03).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Greensboro,”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UNCG> (2013-12-03).

Abstract

A Study on the Missionary Music Teachers at Ewha College: Based on Primary Sources of the United Methodist Archives

Jeeyeon Huh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identities of American single women missionaries who were responsible for the education in the music department at Ewha College (1925-1945), based on the primary sources of the United Methodist Archives.

The missionary music teachers of Ewha College were Mary Young, Catherine Baker, Josephine Dameron, Grace Wood. They received higher education and came to Korea as single women missionaries, choosing to pursue their careers as single women instead of accepting marriage and motherhood.

Since it was impossible to find information on these missionaries in Korea I visited the United Methodist Archive Center, Madison, NJ in the United States to collect primary sources to reveal the biographical information and activities of the missionaries.

In this paper, I summarize the biographical information of the missionaries, based on the primary sources. I also analyze the works of the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C and single women missionaries in the context of the changes of American society after the Civil War and the Industrial Revolution. This paper aims to shed light on the missionary musicians 'personally', since they have been called missionaries 'collectively' in Korean modern music history. Furthermore I insist the coming of the missionary music teachers to Korea indicated the

opportunities for well-educated American women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to pursue their professional careers.

Keywords: single missionary woman, music department at Ewha College,
Mary Young, Catherine Baker, Josephine Dameron, Grace
Wood

투고일	심사일	게재 확정일
2013년 10월 27일	2013년 11월4일~23일	2013년 12월 1일